

석유화학, 기후변화 대응노력 부족

울산, 배출량 따른 원가상승 고려안해 ... 기후변화 활동 세부분석 필요

울산의 석유화학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울산대학교 허영도 교수는 최근 울산대에서 열린 <코펜하겐 의정서(COP15)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대응 전략 세미나>에서 2008년 울산기업 200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설문 조사한 결과 71.5%인 143사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후변화에 관한 분석활동 유무를 묻는 질문에도 조사대상 기업의 69.5%인 139사가 분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.

분석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인 석유화학기업들도 기후변화 협약으로 인한 제품가격변동, 수요변동 등 세부적인 분석활동은 저조한 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허영도 교수는 “자동차와 조선,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산업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”며 “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데도 국내기업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23>